

보 도 해 명 자 료 (19. 5. 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19.5.2일 언론사 대상 ESS 백브리핑은 사고원인조사 중간
결과 발표가 아니며, 발표시기도 연기한 바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 이귀현 과장(043-870-5410)
박해범 사무관(043-870-5418)
김준호 연구관(043-870-5415)

◇ 5월 2일 문화일보의 <벌써 3번째 연기... '재생' 키운다더니 핵심
업계 '벼랑끝 방치'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보도 내용	해명 내용
정부가 알맹이 없는 <u>중간 조사결과</u> 를 내놓자	ESS화재사고는 다수의 제품과 업계가 관련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실증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래서 이번 브리핑은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, <u>진행상황과 계획을 설명</u> 한다는 점을 브리핑 서두에 밝혔음
<u>벌써 3번째 연기</u>	정부 사고조사 결과의 발표시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<u>상반기중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바 있으나</u> , 이번 브리핑에서 6월초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임
<u>화재 21건 중 1건도 사고원인 규명 못해</u>	사고원인조사위원회는 개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<u>21개 사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</u> 현재까지 76개 시험항목중 53개를 완료해서 상당부분 원인과 관련된 사실을 <u>확인</u> 하였으나,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나머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<u>21건 중 1건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</u>